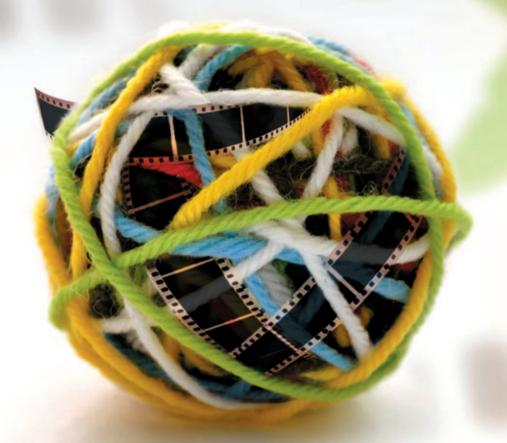
Field Report ● 이장섭·방송과기술 기자 + 제6회 EBS국제다큐영화제(EIDF 2009)

双, 研究人





제6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2009. 9. 21 - 9. 27

주최: EBS 💿 • 우원: 🥏 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제육관광부 🏧 국제대큐멘터리협회 🥎 방송콘텐츠진홍재단

제6회 EBS국제다큐영화제(EIDF 2009)

EIDF - 모든 진실의 눈과 마주하는 다큐 축제

EIDF는 다큐멘터리 시대정신을 계승하고, 세계문화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EBS가 2004년부터 시작한 국제 다큐멘터리 축제이다. 2004년 '변혁의 아시아'란 주제로 파격적인 종일 편성과 다양한 부대행사 등으로 이미 수많은 마니아를 확보한 EIDF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관련 인사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국제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올해는 '지구, 더불어 사는 곳!'을 주제로 지구촌의 다양한 소재를 다룬 50여 편의 세계 최고의 다큐멘터리를 방송·상영한다.

EIDF 2009 개요

(1) 주제: 지구, 더불어 사는 곳!

(2) 기간: 2009년 9월 21일(월) ~ 9월 27일(일)

(3) 장소: EBS Space, 아트하우스 모모

(4) 규모: 20여 개국 50여 편 (57개국 350편 출품) (5) TV방송: EBS 채널을 통해 하루 9시간 이상 방송

(6) 특별행사: 개/폐막식, 포럼, 마스터클래스, 디렉터클래스 등

- 개막식(Opening Ceremony) : 9월 21일 (월) 19시 10분 / EBS Space - 폐막식(Award Ceremony) : 9월 26일 (토) 17시 40분 / EBS Space

(7) 해외초청 게스트: 13개국 15명 초청 예정

(8) 주최 및 후원: EBS,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콘텐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IDA(국제다큐멘터리협회)

EIDF 2009 주제: 지구, 더불어 사는 곳!(Earth, Where We Live!)

EIDF의 기본 목표 중 하나인 '다큐멘터리의 대중화 선도'를 위해 올해 EIDF에서는 '더 나은 지구 공동체'를 염원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짧게는 몇 <mark>달에서 길게는 몇 년 간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진 작품들은 시종일관</mark> 진지한 자세로 만들어진 작품들도 있고, 재미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들도 있다.

좋은 다큐멘<mark>터리들을 통해 다큐멘터리가 바로 여러분의</mark>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다큐멘터리임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IDF 2009 섹션

페스티벌 초이스

총상금 2,500만원이 걸려 있는 EIDF의 꽃, 경쟁 부문. 세계 57개국 총 350여 편의 작품이 출품

해외 수상작 시리즈

IDFA, HOTDOCS 등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작품 들을 포함한 '해외 수상작 시리즈' 를 마련

한국 독립 다큐전

다큐, 예술을 열다

올해는 음악과 무용을 조망

거장의 눈 - 베르너 헤어조그 회고전

The View of Virtuosos – Werner Herzog 감독 자신과 그의 페르소나였던 클라우스 킨스키 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했고, 이에 대한 이해 를 돕고자 극영화도 한 편

카터, 알리 그리고 도르프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무하마드 알리 전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 세계적 작가 아리엘 도르프 만의 자전적 작품들의 모음

이름다운 단편

TV를 시청할 여유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나 다큐 멘터리 장르가 낯선 분들을 위해 20~30분대의 단편들을 상영

다시 보는 EIDF 2008 Reminiscence of EIDF 2008

EIDF 2009 페스티벌 초이스 경쟁작



◀ 얼굴: 그웬델린 이야기 / 메리 카츠케

아프간 스타 / 하바나 마킹 ▶





◀ 재앙 그 후 / 슈 총푸

나는 경제 저격수였다 / 스텔리오스 코울 ▶





◀ 소년야구단 / 션 코샹, 랴오 칭야오

콘스탄틴 & 엘레나 / 안드레이 다스칼레스쿠 ▶





◆ 가자 - 스데롯 전쟁 전의 기록 /
세르쥬 고르디, 알렉스 스잘랑

구글 베이비 / 지피 브랜드 프랭크 ▶





◀ 왕비와 나 / 나히드 페르손 사르베스타니

찢어라! 리믹스 선언 / 브렛 게일러 ▶





◀ 환생을 찾아서 / 나티 바라츠